

# ‘시민의 행복’ 가치 흔들림 없이... 시정 운영 최선

## 위기를 기회로 미래 도약 노력

2025년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한 해 김제시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시민의 행복’이라는 흔들림 없는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도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까지 여전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으나, 시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미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김제시는 각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 창출을 이뤘다. 지금부터 더 특별해진 김제시의 8대 분야 주요 성과를 살펴본다.



###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김제의 역사를 더 새롭게!

먼저, 김제시는 역대 최고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국가예산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지자체 간 소리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6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국가 직접사업 5,178억원, 시 직접사업 4,949억원으로 총 1조 125억원이며,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신규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대거 반영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주요 신규 반영사업으로는 △시설농업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279억원)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총사업비 282억원) △외곽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85억원) 등이 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기조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연계 사업 19건을 발굴하고 지역 7대 대선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하는 등 국회와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방문하며 전방위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며 전북 권 4대 도시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해 민생을 더 든든하게!

시는 역대 최고 고용률인 68.8%(올해 2월말 기준)를 달성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초 5년 연속 일자리 분야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김제시의 고용 정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또한, 일자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데이와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대리운전·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 힘터까지 개소하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지난 5월에는 경제도약의 구심점이 될 김제상공회의소가 개소하면서 김제 상공인들의 염원이 현실이 됐으며, 민간협력형 공공배달업 ‘빅배’ 도입과 일상회복지원금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민과 지역상권 모두가 웃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또한 올해에는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 장터와 김제중앙시장 달빛장터 등 (夜)시장 축제를 새롭게 선보이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김제사랑상품권 환인혜택 확대(10%→15%),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중소기업업무 주관 로컬 브랜드 창출팀 공모 선정으로 눈 위에서 펼쳐지는 이색 축제인 ‘오늘의 평야·제10회 마을잔치’가 축산면에서 개최하면서 새로운 지역 축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까지 되면서 과거 번성했던 축산 삶거리의 활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동력 확보, 산업을 더 탄탄하게!

시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전략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지컬 AI 기반 인공지능 대전환(AI) 기자화, 필드 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개최하는 등 피지컬 AI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유일 특장차 전문단지인 보유한 도시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고소작업 건설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다부처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김제시는 국내 1위 유리섬유 도어 제조 기업인 (주)도어코리아와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주)한국몰드김제 등 9개 유망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총 912억원 투자유치와 535명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아울러, 지평산업발전사업단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연장됐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특화비자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취업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김제시는 투자유치의 최적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동력 확보, 산업을 더 탄탄하게!

시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전략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지컬 AI 기반 인공지능 대전환(AI) 기자화, 필드 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개최하는 등 피지컬 AI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유일 특장차 전문단지인 보유한 도시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고소작업 건설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다부처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김제시는 국내 1위 유리섬유 도어 제조 기업인 (주)도어코리아와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주)한국몰드김제 등 9개 유망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총 912억원 투자유치와 535명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아울러, 지평산업발전사업단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연장됐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특화비자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취업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김제시는 투자유치의 최적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국내 1위 유리섬유 도어 제조 기업인 (주)도어코리아와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주)한국몰드김제 등 9개 유망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총 912억원 투자유치와 535명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일자리·지역경제에 온기 더해 AI 3대 강국 도약 능동적 대응

###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민금 중심지역 김제 관할로 확정돼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에타대상 선정으로 글로벌 중자산업 진출 첫 단추 끼워



###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동력 확보, 산업을 더 탄탄하게!

시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전략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지컬 AI 기반 인공지능 대전환(AI) 기자화, 필드 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개최하는 등 피지컬 AI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유일 특장차 전문단지인 보유한 도시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고소작업 건설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다부처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김제시는 국내 1위 유리섬유 도어 제조 기업인 (주)도어코리아와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주)한국몰드김제 등 9개 유망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총 912억원 투자유치와 535명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아울러, 지평산업발전사업단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연장됐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특화비자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취업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김제시는 투자유치의 최적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고 있다.

명을 돌파해 도내 10개 인구감소지역에서 2위의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1995년 통합시 출범 이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김제시는 기존의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김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 365일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으며,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여성친화도시 지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사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교육부 평생학습진흥지구 공모사업 선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등을 통해 우수평생학습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곳곳에 활력을 채우고 고유한 가치를 담아, 지역을 더 매력있게!

김제관아의 첫 번째 출입문으로 일제 강점기에 철거됐던 외삼문을 복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외삼문 복원 사업이 지난 8월에 국가유신청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10여년 만에 김제의 정문을 다시 역사 위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열린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22만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관객을 끌어 모으며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축제로서의 위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또한, 민선 8기에 선보인 김제형 축제 가운데 꽃빛드림축제는 민·관협력과 시민 참여 확대로 전년 대비 51%가 증가한 3만5,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자원순환 새로보기 축제는 환경부가 주최하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연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 참여형 환경 축제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8년 연속 국가유신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가유산 야행, 제3회 미래특장차산업 박람회와 연계한 청년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문화 축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아울러,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무료화 시행, 금구대유원지 오토캠핑장 운영, 모악산도립공원 맨발 힐링길 조성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고 머무를 수 있는 힐링·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삶에 더 가깝게!

시는 올해에도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실현을 위해 소통 행정을 활발히 펼쳤다. 열린 시장일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을 추진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했으며, 신규 플랫폼 ‘스레드’ 개설과 가상인물 ‘(김)제시’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 나갔다.

또한,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98.4%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가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획득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행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하천 정비사업 등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에 힘쓰고, 공공분야외곽과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 왔다.

이밖에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행정평가 우수상, 도내 유일 의료급여 사업 기관평가 장관상과 아동정책 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등 시정 전반에서 알찬 결실들을 거두며, 김제시의 내실 있는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께 오늘보다 더 특별한 내일을 드리기 위해, 기회도시 김제 라는 이름에 걸맞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 모든 성과는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덕분이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026년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4년 전 마음가짐 그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